

CBWF 이슈페이퍼

발행처 | 충북여성재단

발행일 | 2021. 05. 31

발행인 | 박혜경

홈페이지 | www.cbwf.re.kr

코로나19 이후 초등돌봄 현황과 나아갈 방향

김연화 | 충북여성재단 정책연구팀 연구위원

목차

1. 여전히 공백이 큰 초등돌봄
2. 충북의 초등돌봄 현황
3. 초등학생 돌봄 정책
4. 초등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5. 초등돌봄이 나아갈 방향

1. 여전히 공백이 큰 초등돌봄

-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가정의 책임으로만 여겨졌던 돌봄이 사회로 이양되는 변화가 나타남. 아동 돌봄을 위해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돌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는 돌봐주는 사람과 장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돌봄의 주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상이할 수 있음

- 초등학생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서 엄마들이 마지못해 3월의 장기휴가를 써야 하는 일들이 발생¹⁾하는 것처럼,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게 됨. 특히 코로나 이후 직장맘의 52%가 돌봄 부담에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어²⁾ 여전히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공급은 부족한 상황임³⁾
-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충청북도에 거주중인 도민들의 돌봄현황과 돌봄에 대한 인식 및 정책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 정책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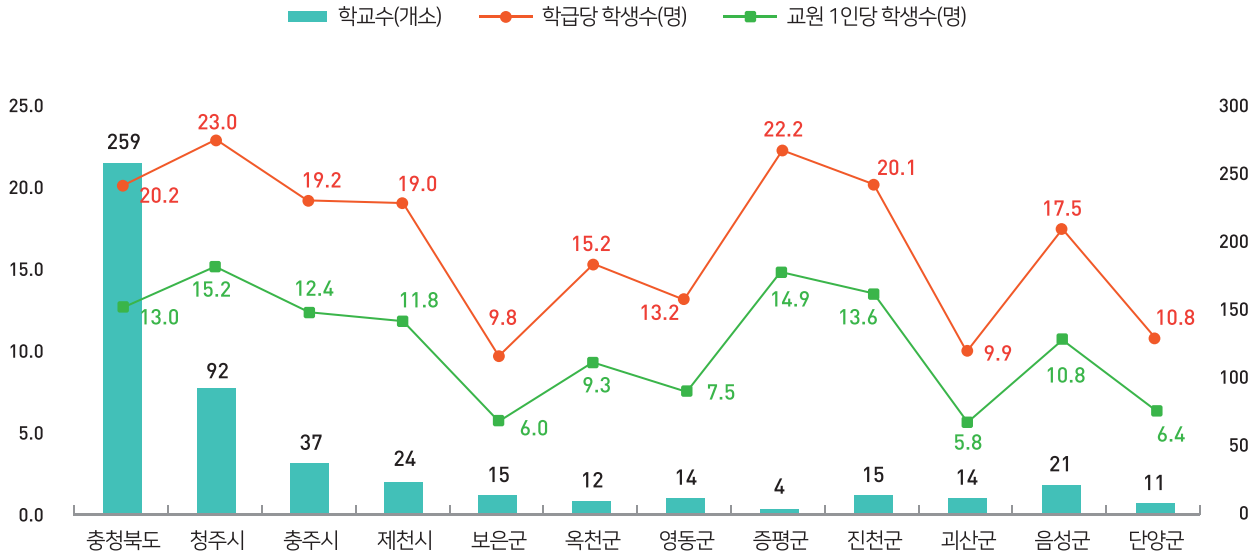
2. 충북의 초등돌봄 현황

-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는 만 6세~11세는 86,867명임. 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청주시였고, 11개 시·군에서 인구수 대비하여 여아와 남아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음
- 충청북도의 초등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충청북도에는 총 268개(분교포함)의 초등학교와 4,299개의 학급이 있음. 초등학생은 86,709명이며, 여아는 42,064명(48.5%)이고 남아는 44,645명(51.5%)임
 - 초등학교에는 6,675명의 교원이 있고, 그 중 여성 교원은 4,702명(70.4%)임. 여성 교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청주시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단양군임
 - 충북의 초등학교에는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334.8명이 재학중이었고, 학교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시(552.1명)였으며, 가장 적은 곳은 괴산군(75.4명)으로 나타남
- 충북의 초등학교는 평균적으로 한 학급당 20.2명의 학생이 있었으며, 한 학급에 학생수는 청주시(23.0명)가 가장 많았고, 보은군(9.8명)이 가장 적었음. 충청북도 초등학교는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3.0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은 지역은 청주시(15.2명)와 증평군(14.9명)으로 나타남. 괴산군은 5.8명으로 가장 적었음
 - 학교, 학급 및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청주시는 학교, 학급 및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았음. 증평군의 경우 충북에서 두 번째로 학급 및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았는데, 학생은 2천여 명인데 반해 학교 수는 4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추됨

1) “퇴사?...워킹맘, 아이 초등 입학때 가장 고심” (경향신문, 2019.12.08.), “초등생 아이 돌 볼 곳이 없어요” 엄마들 마지못한 ‘3월 장기휴가’ (한국일보, 2020.01.09.)

2) “코로나 1년, 육아-라이프 밸런스 ‘육아밸’이 무너졌다” (동아일보, 2021.05.10.)

3) 김영란, 조선주, 선보영, 배호중, 김진석, 정영모(2018). 초등학생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 분석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 : 충청북도교육청(2019), 충북교육통계연보(2019년 4월 1일 기준)
 주 : 분교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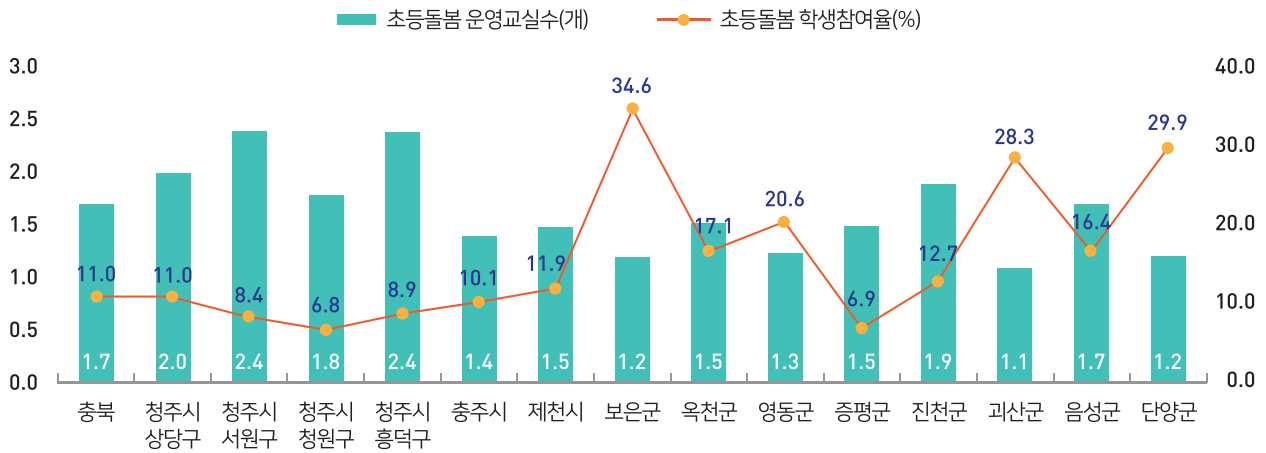
[그림 1] 충북의 학교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3. 초등학생 돌봄 정책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돌봄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봄사업, 온종일 돌봄 등이 있음

1) 초등돌봄교실

-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 저소득층 ·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오후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있음
- 충북 시 · 군별로 초등돌봄 운영교실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돌봄 운영교실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시 서원구와 흥덕구(각각 2.4개)이며, 괴산군(1.1개)이 가장 적은 수를 보임. 반면, 초등돌봄 운영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보은군(34.6%)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청주시 청원구(6.8%)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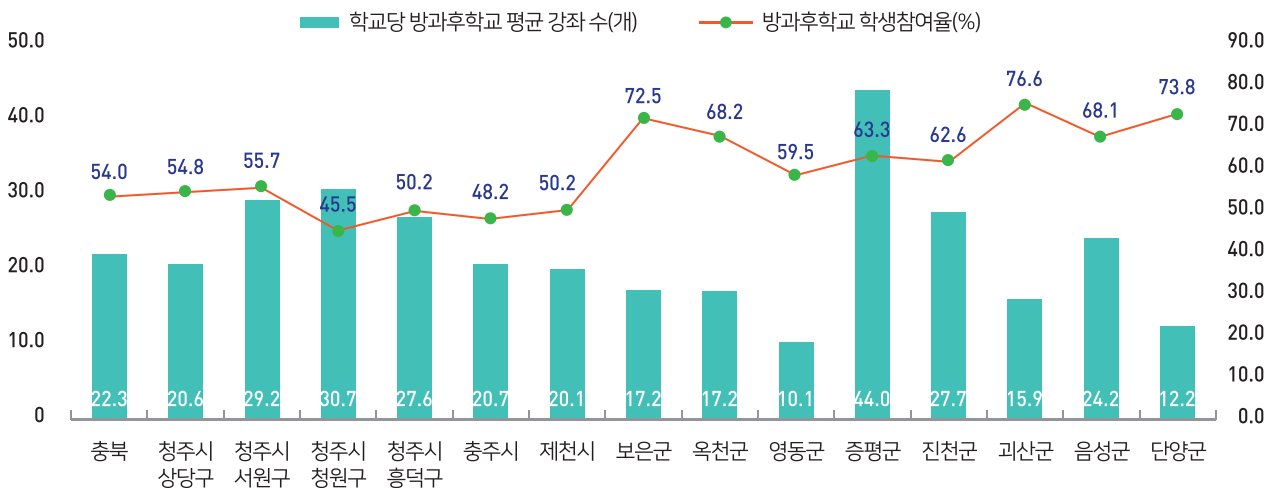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통계청 추출(2019년 8월 기준)

[그림 2] 충청 시·군별 초등돌봄 운영교실 수와 학생참여율

2) 방과후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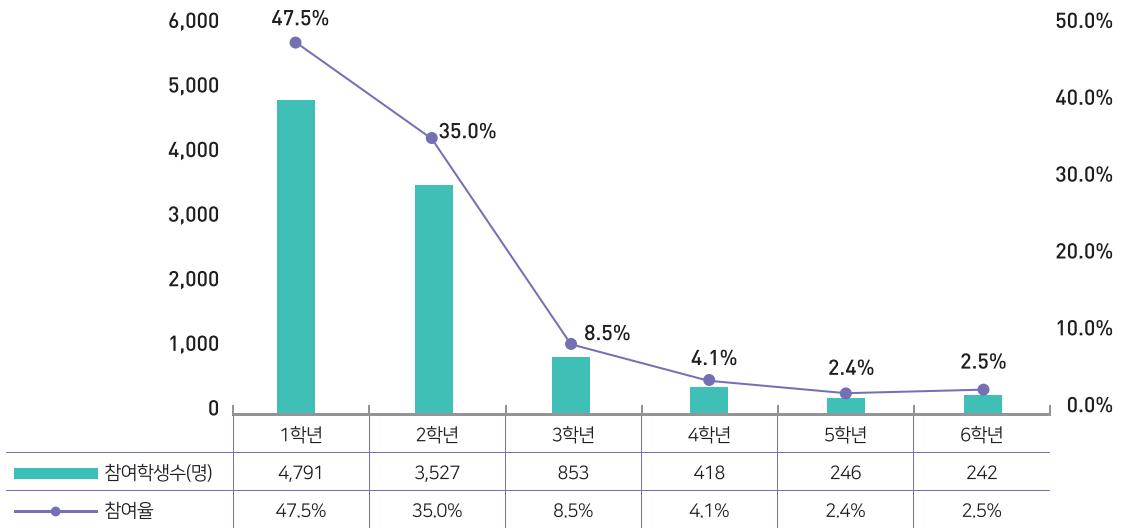
- 2019년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교알리미에 의하면, 방과후학교 평균강좌 수는 전국이 27개인데 반해 충북은 22.3개로 나타나 전국보다 강좌수가 적었음. 충북의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도 전국 58.0%보다 다소 낮은 54.0%의 비율을 보임
- 학교당 방과후 학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의 평균 강좌수는 22.3개이고, 평균 강좌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증평군(44개)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영동군(10.1개)이었음. 또한 방과후학교의 학생참여율을 살펴보면, 괴산군 (76.6%)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청주시 청원구(45.5%)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음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통계청 추출(2019년 8월 기준)

[그림 3] 충청 시·군별 방과후학교 평균 강좌 수와 학생참여율

- 충북의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총 10,077명이며, 도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약 28,900명 중 8,318명 (28.8%)이 참여함. 2019년 기준으로 256교 5분교장, 481실을 운영하였고, 오후돌봄 435실, 저녁돌봄 10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 36실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통계청 추출(2019년 8월 기준)

[그림 4] 충북 초등돌봄교실 학년별 참여율

3) 지역아동센터

-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당시 895개소에서 법제화(아동복지법 제52조 제8항)에 따른 정부 지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4,107개소이며 이용아동은 106,668명임
- 충북은 2021년 기준으로 총 18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음

[표 1]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현황

(단위 : 개소)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17	15	18	26	36	9	7
182개소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3	9	4	7	8	18	5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icareinfo.go.kr>) (2021년 5월 기준)

4) 다함께 돌봄사업

- 충청북도는 2017년에 시범사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일시·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사업을 함
- 전국에는 2019년 173개소에서 2020년 344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으며, 충북에는 총 20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음(2021년 4월 기준)

[표 2] 충청북도 다함께 돌봄센터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개소수	20	5	2	8	-	1	-	-	2	2	-	-

자료 : 다함께 돌봄사업 홈페이지(<https://www.dadol.or.kr>)

5)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후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임
- 2005년 9월부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하여,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됨. 2019년 9월 기준으로 279개소의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공공시설에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음. 충청북도에는 총 13개소로 청주시와 제천시만 2개소이고 다른 시·군은 1개소씩 운영되고 있음(2021년 5월 기준)

[표 3] 충청북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개소수	13	2	1	2	1	1	1	1	1	1	1	1

자료 :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www.youth.go.kr>)

6) 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로 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시행된 정부정책 사업임
- 충북은 2019년에 2,100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707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함

7) 온종일 돌봄

- 온종일 돌봄 체계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방과후에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편한 학교와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흥미·적성·진로를 고려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수요자(아동)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임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제시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에 의하면 현재는 초등 1~2학년을 위주의 돌봄에서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2022년에는 온종일 돌봄을 53만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초등학생의 돌봄을 위해 부처별 사업명과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 충청북도 다함께 돌봄센터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업명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대상	1~6학년	만 18세 미만	만 6~12세 미만	초등4학년~중등3학년	
지원기준(소득)	맞벌이 가정 중심(없음)	취약계층 중심(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 가정 중심(없음)	취약계층 중심(중위소득 60% 이하)	
시설수(충북)	256교	184개소	14개소	12개소	
지원내용	보호, 교육 및 일부 급간식지원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상시 및 일시 돌봄프로그램 운영	학습지원, 전문체험, 자기개발 활동, 급식, 귀가차량 지원 등	
지원형태	무상(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무상(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부담)	10만원 이내 이용료 자부담	무상	
운영시간	학기	방과후~17시(일부 22시 까지 운영)	14~19시	여건에 따라 자율	방과후~21시
	방학	여건에 따라 자율	12~17시	여건에 따라 자율	1일 4시간(시간대는 자율운영)
근거법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2015-74호)	아동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자료: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2019)

4. 초등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 초등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충청북도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된 표본 수는 1,423부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함. 설문은 조사내용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자의 초등돌봄의 현황 및 인식, 필요한 초등돌봄의 정책 수요, 돌봄의 어려움 및 해결방안 등의 내용임. 지역별 비례 할당으로 표집하였고, 자료는 코딩화, 클리닝 과정을 거쳐 IBM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함. 초등돌봄의 현황 및 수요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함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58.0%, 남성이 42.0%였음. 청주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40대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3.9%였으며, 맞벌이 부부가 70.1%로 가장 많았음. 응답자 중 4년제 대학교 졸업자(38.3%)가 가장 많았고, 직업은 사무종사자(25.8%)가 가장 많았으며, 전업주부는 18.3%였음. 대부분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하였으며(95.5%), 자녀가 1학년인 경우가 19.5%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여아인 경우는 51.0%, 남아인 경우는 49.0%로 나타남
 - 부부의 경제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응답자 본인의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44.8%, 전업주부가 18.3% 등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배우자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57.5%, 자영업이 14.3% 등 이었음. 응답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300만원대 (25.2%)가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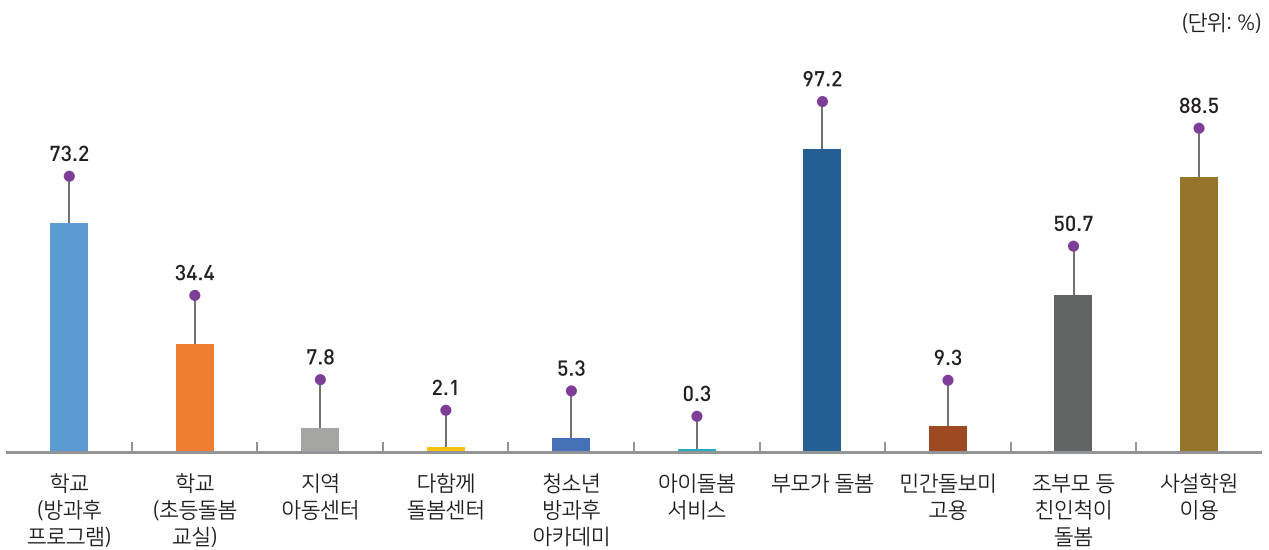
1) 초등돌봄의 경험과 인식조사 결과

- 초등학생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에 대해 알아봄
 - 자녀는 주로 엄마가 돌보고 있었으며(83.4%) 그 다음은 조부모(9.6%)였음. 자녀를 양육하면서 긴급할 때는 (외)조부모(30.1%)와 배우자(16.2%)의 지원이 있었음
- 초등학생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조사함
 - 그 결과, 학기 중에는 16시 30분~18시까지 혼자 있는 경우가 5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8시~20시 (29.5%)까지로 나타남. 방학 중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임
 -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아동이 혼자 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사회 공적 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봄
 - 공적 돌봄서비스의 인지도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96.8%), 초등돌봄교실(93.6%), 지역아동센터(77.5%), 아이돌봄서비스(58.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53.8%), 공동육아나눔터(45.8%), 다함께 돌봄센터(42.6%)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인 부모들은 방과후 아동을 돌보는 기관의 위치, 서비스 제공시간, 전문성이 적절하다고 인식함. 또한 활동이나 기관의 환경이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음

- 돌봄서비스에서 현금지원 보다는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더 필요하며 공적 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취업 등 활동시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함. 지역에 돌봄 거점 기관이 있다면 자녀와 함께 이용할 의향이 있었음

• 지난 1년 동안 이용해 본 돌봄의 유형과 만족도에 대해 알아봄

- 그 결과,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73.2%)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은 34.4%가 이용하였음. 지역아동센터는 7.8%, 다함께 돌봄센터는 2.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5.3%, 아이돌봄서비스는 0.3%가 이용함
- 돌봄유형에 따른 만족도는 모든 유형이 3점 이상으로 대부분 만족하였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돌봄유형은 방과후 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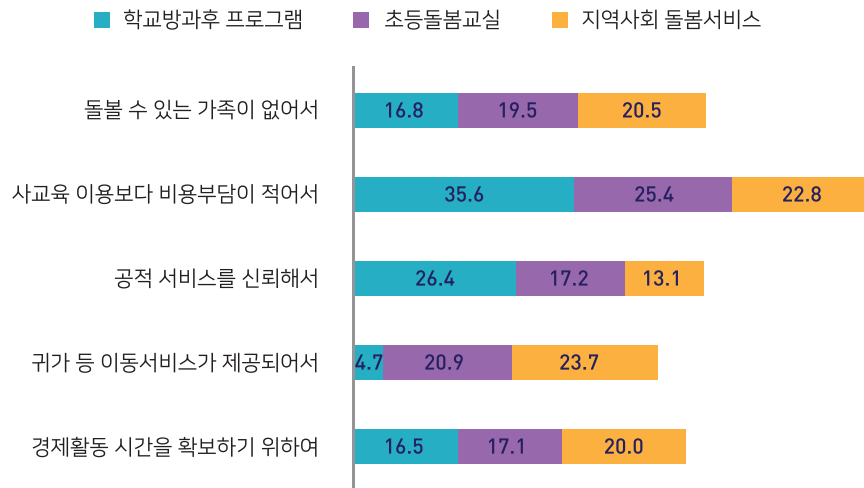


[그림 5]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해본 돌봄유형

• 공적 돌봄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하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남

-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은 비용부담이 적어서 선택을 많이 하였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는 귀가 등 이동서비스가 제공되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초등돌봄교실은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제공시간과 원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음.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는 서비스의 제공시간과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했다고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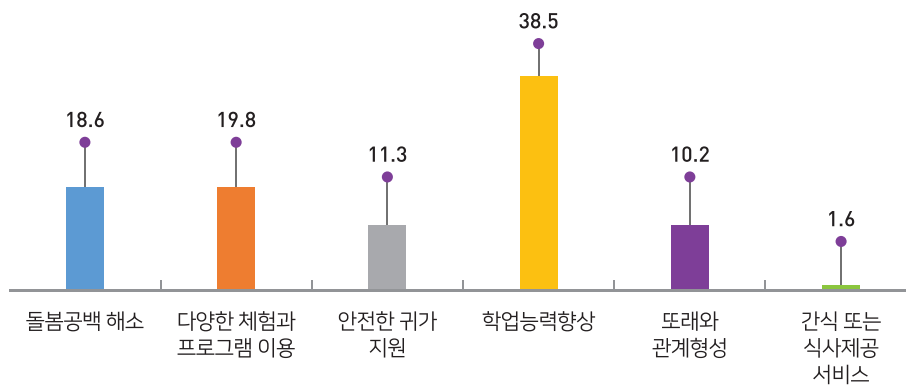
(단위: %)



[그림 6]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 공적 돌봄서비스는 획일화 된 서비스 제공시간이나 한정된 대상의 지원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의 다양화나 지원대상의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사교육 이용에 대해 알아봄
 - 사교육을 이용해 본 부모는 88.5%였으며, 학업능력향상 때문에 사교육을 이용했다는 의견(38.5%)과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한다는 의견(18.6%) 등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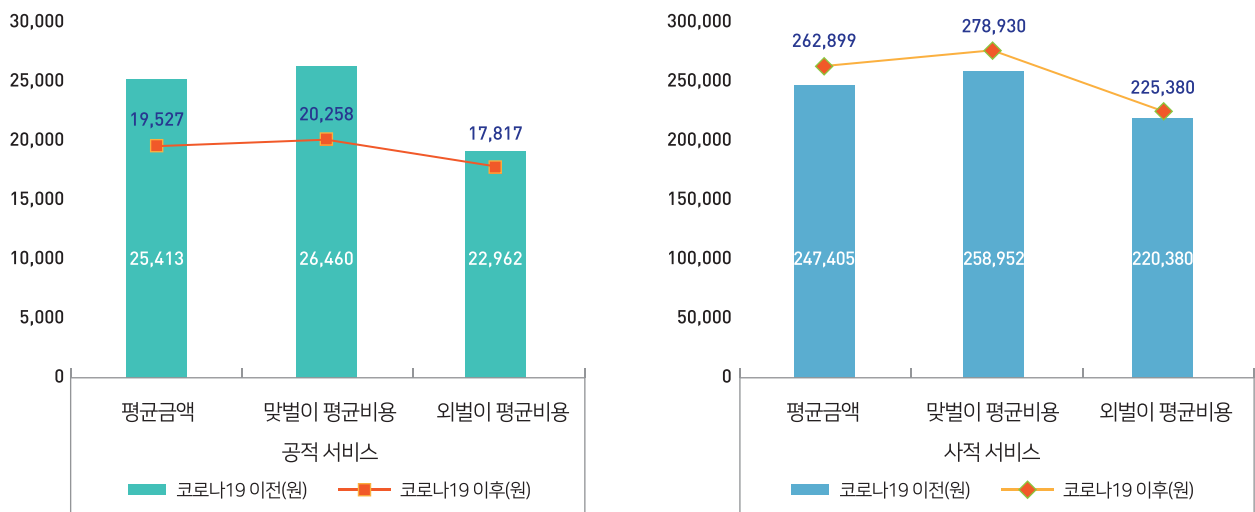
(단위: %)



[그림 7]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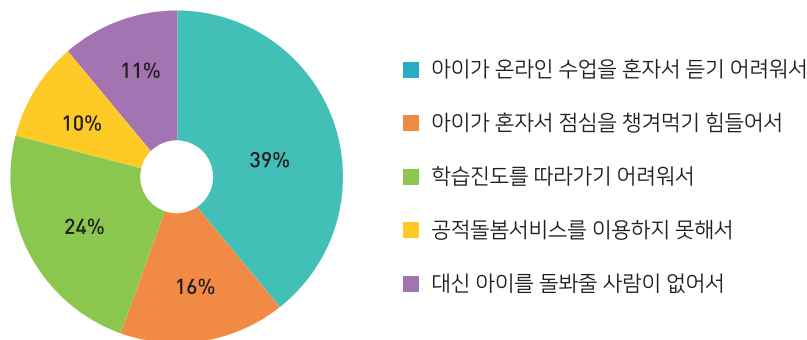
2)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돌봄 현황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제시함)로 인한 변화를 알아봄
 -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음. 등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돌봄의 공백이 더 커진 상황에서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의 비용이 더 적게 지출되었음. 맞벌이 가족과 외벌이 가족도 비슷한 특성을 보임
 - 그러나 사적 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에 비용이 더 증가하였음. 맞벌이 가족과 외벌이 가족도 비슷한 특성을 보였으나, 외벌이 가족보다는 맞벌이 가족의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함



[그림 8]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돌봄비용 비교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자녀돌봄의 어려운 점을 조사함
 -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혼자서 듣기 어려운 것을 가장 힘들어했고, 학습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웠으며, 아이가 혼자서 점심을 챙겨 먹어야 하는 상황 등이 힘들다고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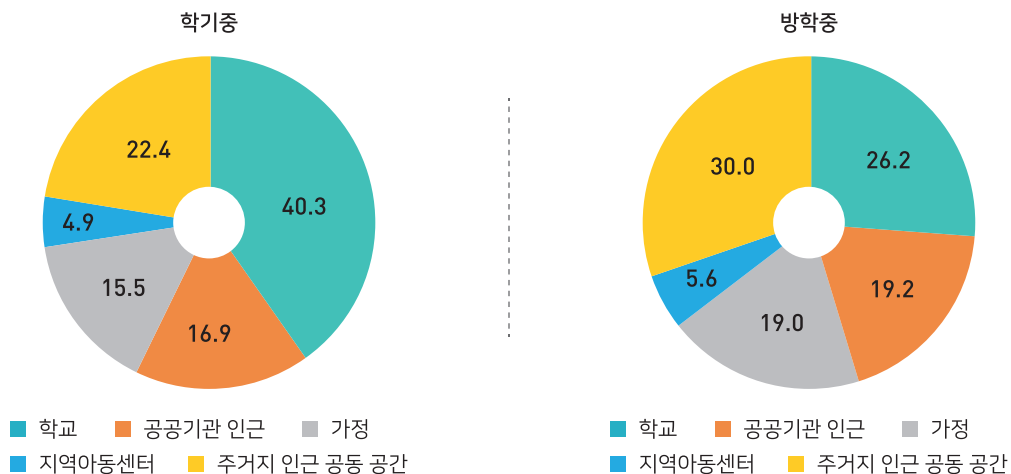
[그림 9] 코로나19 상황으로 자녀 돌봄이 힘든 점

- 코로나19의 발생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봄
 -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면 가장 필요한 돌봄서비스는 방학중과 학기중의 돌봄서비스 운영시간의 확대와 돌봄서비스의 이용자격을 폐지하고 이용대상의 확대라고 함

3) 필요한 초등돌봄서비스

- 충청북도 지역에서의 자녀돌봄 경험을 조사한 결과, 부모 10명 중 6명은 지역사회 아동돌봄의 사회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체육활동과 같은 특기 적성 프로그램과 독서와 놀이 프로그램 및 학교수업 보충으로 나타남
 - 돌봄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프로그램의 질이었으며, 시설환경, 서비스의 접근성, 아동의 안전한 보호, 교사의 자질, 또래관계 형성의 순으로 나타남. 수요자 중심의 공적 돌봄서비스가 되려면 방학중과 학기중의 돌봄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해야 하며, 돌봄 이용자격의 폐지로 이용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부모들은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한 아동돌봄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지역사회 내에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는 아동돌봄센터가 생긴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었으며(79.3%) 이용을 원하는 시간대는 16시 30분~18시와 18시~20시로 아동이 혼자있는 시간과 일치하였음. 또한 적절한 공간은 학교나 주거지 인근 공간이라고 응답함
 - 10명 중 7명의 부모는 유료화로 운영되는 아동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이 있으며 적절한 이용금액은 월 10만원 이하로 나타남.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적 돌봄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함

(단위: %)



[그림 10] 아동돌봄센터의 적절한 공간

4) 자녀돌봄과 일의 균형

- 일상생활과 초등자녀 돌봄의 어려움
 - 일상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돌볼 때 어려운 것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어려움의 순으로 나타남. 자신을 위한 여유 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렵거나 기관이 부족하여 힘들다는 응답이 있었음.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나 기관을 찾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음
- 응답자인 부모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의 경험이 40.1%가 있었음
 - 여성의 66.5%와 남성의 3.7%가 경력단절의 경험이 있었음
- 취업자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아동돌봄 정책에 대해 조사함
 - 그 결과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조직문화 조성,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확대, 보육시설 확충, 장시간 일하는 문화 개선 등의 의견이 나옴. 또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재정지원을 통한 돌봄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초등학교 방과후에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절한 비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아동돌봄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아동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 학교와 마을 및 주민이 참여하는 돌봄여건이 조성의 순으로 나타남

5. 초등돌봄이 나아갈 방향

- 보편적 초등 돌봄서비스를 위한 이용대상자, 이용시간 등 확대
 -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17시까지 운영하는 상황으로 부모의 퇴근 전까지 돌봄의 공백이 발생함. 이러한 돌봄의 공백은 아동 혼자 있거나 사교육으로 대신하고 있었음. 돌봄서비스의 이용자격 폐지와 이용시간의 확대가 필요함. 정교화되고 상시화 된 공적 돌봄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보편적 초등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수업시간 연장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 연장이 필요해 보임. 연장된 수업은 학습 위주가 아닌, 예체능 중심의 놀이를 통한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아동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인기있는 강좌는 여러 반을 개설하는 등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함
-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및 온종일 돌봄체계 홍보
 -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인지도에 비해 이용률은 낮은 편으로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함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동돌봄 공간 마련
 - 아동이 안전하게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공적 돌봄기관이 있어야 활용도가 높을 것임. 서울시의 중구처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학교 내의 여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또는 아파트 단지의 공동 공간이나 경로당 등 주거지에 인접한 공간이나 지역의 공공기관 및 도서관 등을 활용해야 할 것임
- 긴급돌봄 등 일시적 돌봄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 본 연구의 결과로 알 수 있듯이 감염병 질환이나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용이하게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해 보임. 감염병 같은 질병에 걸린 경우 집으로 돌봄교사를 파견하는 등의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지역에 긴급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동돌봄센터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IT를 활용한 충청북도 돌봄센터 정보공유 포털 구축
 - 충청북도의 아동돌봄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키움포털'과 같은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의 출입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내용이 부모에게 문자로 전송되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부부가 함께하는 돌봄문화 확산 및 사회적 제도 활용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육아와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여성은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3배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돌봄이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인식을 알 수 있었음
 - 돌봄은 부모의 공동 역할임. 여성의 역할로 여겨지거나 여성이 잘한다는 편견을 없애고, 부모가 함께 돌보는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부모가 함께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확대, 장시간 일하는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김연화, 김선미(2020).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방안 : 초등 돌봄을 중심으로」 연구를 요약, 재구성함